

종교교육학연구 제16권. pp.27~4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톨릭의 종교교육

鄭 賢 淑

(수원대학교)

《요약》

한 사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궁극적 가치와 신념체제로 종교의 중요성을 기술한 후,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무(巫)교, 선(仙)교, 불교, 유교 중 조선시대 후기부터 가톨릭 및 서구 문화와의 만남에서 극심한 정체성 갈등을 보였던 유교적 전통과 가톨릭 교리의 상호작용을 고찰했다. 먼저 가톨릭의 수용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개괄하고, 신관, 윤리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정체성 충돌을 논했다. 정체성 충돌의 시기에는 두 신념체계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했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점차 전통 문화와 가톨릭 교리의 상호이해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늘어나 토착화라는 성숙한 종교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1세기에 당면한 한국인의 정체성 붕괴와 혼란은 물질문명에 끌려가는 정신문명의 쇠퇴와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유입에 따른 소용돌이에 큰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긴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톨릭 종교교육은 정체성의 재정립과 성숙에 기여해야함을 논했다.

핵심 주제어 : 정체성, 토착화, 종교 다원화, 교리, 서학, 종교교육.

I. 서론

한국인의 정체성 이라는 주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방법론적 접근도 다양하다. 정체성을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정도로' 소박하게 정의 하더라도,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전통과 문

화, 신념체계, 가치관 등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뿌리를 둘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의 체계를 궁극적으로 틀잡는 최고위의 기구는 다름 아닌 종교이고 따라서 그것의 교리와 의식이 신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은 오랜 역사 가운데 몇번의 종교 교체의 경험을 겪었으며, 무(巫)교, 선(仙)교, 불교, 유교 등이 들어올 때마다 정체성 혼란과 갈등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대체로는 섞이고 융통하고 화합하여 공존하는 가치체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가톨릭 등 그리스도교가 서학의 이름으로 전래되면서 그 수용과정은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유교와 가톨릭의 충돌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다. 평화와 회통의 전통적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 빛을 잃고, 이분법적 양자택일의 강요를 받게 되었으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토착화'를 열린 선교 정책으로 택함으로써 비로소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관습과 기독교의 교리가 상호쇄신과 상호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일백년간의 유교주의적 전통과 가톨릭 교리의 충돌은 우리 한국인에게 값진 경험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정체성을 더욱 풍요롭고 고양되게 하는 데에 기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 시대에 당면하게 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맞게된 정체성의 혼란은 안으로는 산업발전에 따른 근대화에 기인한다. 즉 유교주의에 근거한 인간관계 중심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효율성, 경제성, 배금주의 등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여, 각종 강력 범죄와 약물남용, 과소비 현상, 세대간 문화의 격차, 생명복제 등 인간과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는 등 정신빈곤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계의 각종 종교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벌임으로서 종교간의 교리와 의식체계가 다른데서 오는 혼돈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한 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신념체계를 어떻게 융화시켜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시키며 동시에 개인의 삶에도 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관건이다.

이러한 현대 한국인이 맞은 물질풍요와 정신 빈곤, 종교다원화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종교교육이 정신적 가치를 강조함으로 물질풍요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며, 특히 가톨릭은 오랜 역사의 교리교육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을 정신적 타락으로부터 구원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래과정에서 겪은 금압기의 체

협과 토착화의 운동을 종교다양성의 현장에 확대 적용하여 공존과 평화 대화와 회통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체성의 의미와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가톨릭의 전래 수용과정에서의 정체성 충돌과 토착화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가톨릭 종교교육이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방향을 알아보겠다.

II. 한국인의 정체성과 종교

산업과 교통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국가와 문화 간 교류가 빈번해지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국제적 또는 전 지구적 세계관의 요청 등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주어진 삶의 틀을 따라 관습적으로 살수 없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제는 종교적 수행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 모두 각자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직접 당면한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다. 이는 세계질서의 큰 변동기를 맞이한 이차대전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활발한 연구로 표출되었다.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진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적 심리적 동요로 부터 볼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정신의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당연히 ‘정체성’이라는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념정의를 하나의 명확한 이론으로 제시할 수도 없다. 여기서는 단지한 중요한 예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자기 정체성(ego-identity)을 살펴 보겠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발표하여 학문적 관심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낸 사람은 에릭슨이다. 그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는 사회적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심리사회적 정체성(psychosocial identity)'을 도입함으로써 정체성 연구에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사실 에릭슨은 자신의 글들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의만을 하고 있다. 에릭슨은 자기 정체성은 에고의 종합방식에 자기동일성과 지속성이 있으며 이 종합방식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닌 의미의 동일성과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에릭슨은 인간이 유기체로서 육체적 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고로서는 에고 과정을, 사회성원으로서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조직되는 것이 바로 인간생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에고(ego)에는 환경이나 유기체의 갑작스러운 불연속성으로부터 오는 위험적 충격을 조정해줌으로써 개인의 일관성과 개성을 보호해주는 경험조직이 있다. 이 과정은 사람들을 외적, 내적 위험에 대비시켜 주며,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기회를 통합시켜 주고 일관된 개성화와 정체성의 느낌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갖게 되는 정체성이 바로 나는 하나의 자아이고 분명한 나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내가 된다는 느낌이다.¹⁾

에릭슨은 사회심리학적인 정체성 연구에서 정체성의 뿌리를 사회문화적 요소에서 찾았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가족 사회공동체, 국가, 인종 등 집단들로 조직되며, 정체성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되어 간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관점은 종교사회학적 관점과 그대로 상통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사회학의 주요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구조·기능론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사회의 기본 구조는 통합된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제도는 그 사회가 지닌 의미의 궁극적인 준거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짜여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이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가 자체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목표와 의미, 그리고 해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공동의 신념체계가 사회의 상부구조로 마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될 때, 각 사회성원들은 자신의 정체의식을 확립할 수 있으며, 모든 사회제도도 그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사회적 통합성과 균등유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치와 신념체계의 개념은 문화적 전통의 중심적 측면을 행위체계로 파악하게 해 주는 윤리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치와 신념체계는 사회성원들의 행위에 대해 그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 주고 각 사회성원의 행위체계를 통합시켜 주는 전통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구조가 일련의 통합된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러한 명제는 필연적으로 사회가치체계의 궁극적인 준거, 사회실체의 궁극적인 구조 및 행위의 궁극적인 체계를 상징지우는 종교의 영역과 관련된다. 왜냐면,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삶의 전체를 궁극적 실재와 관련시킴으로써 인간존재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그 방법을 설정해 주는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의미의 궁극적인 틀과 조화시켜 자체의 제도적인 구조를 짜게 마련인 것이다. 특히 사회구조가 미분화되어 있는 전통사회에서는 종교적 신념체계가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의 구조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의 본질과 성격, 즉 전통사회를 유지시키는 종교적 신념체계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볼

1) Erikson Erik. H., *Identity : Youth and Crisis*, W.W.Norton & Company Inc., 1968, pp.35-36.

수 있다.²⁾

한국인의 정체성은 그의 가치와 신념체계의 궁극적인 틀인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 시점에서의 표면적 종교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심층에 깔려있는, 오랜 역사에 걸쳐 껍껍이 쌓여온 한국 민중의 종교적 체험의 역사를 잠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원초적 종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되는 풍류도(風流道)가 아닐까 짐작되나 어떤 교리 형태를 갖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오늘날의 무속 등을 한국인의 심층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종교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무교(巫敎)라고 지칭함이 적절 할 것 같다.³⁾

무교와 뒤섞여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인의 의식에 깊이 들어 있으면서도 일정한 종교적 틀을 갖추지 않은 것이 노장 사상과 도교(道敎) 또는 선교(仙敎)라 하겠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심층의식의 종교가 무교와 선교라면 그 반대의 표면의식의 종교 즉 사회윤리를 결정한 종교는 유교(儒敎)라 하겠다. 그러므로 근대에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전래에 의한 종교적 충격이 가해지기 이전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결정한 종교는 무(巫)교, 선(仙)교, 불(佛)교, 유(儒)교라 하겠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과학기술문명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은 사회문화적 대 혼란과 전환 그리고 종교적 갈등과 적응을 격게 되었고, 따라서 정체성의 요동이 심하게 일어났다. 이에 유·불·선 3교의 통합을 지향하고 서학의 유입에 대항하는 동학(천도교)의 발흥을 비롯하여, 증산교, 원불교 등 새로운 종교들이 일어났으며, 현재 한국은 종교의 박람회장을 방불케하는 다양한 종단들이 교화활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는 전통적 정체성이 와해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을 찾아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이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집단 안에서 구현된다. 사회는 구성요원들에게 전형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그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종교였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 종교가 있을 때에는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이 전형적 가치관, 윤리관, 생사관, 신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이것이 곧 사회와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과거의 한국 역사 속에는 몇 번의 종교적 전환기가 있었다. 무교

2) 노길명, <조선 후기 가톨릭의 수용과 가족관계의 변화>,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아세아연구》

7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4, 503-504쪽.

3)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6, 14쪽.

와 선교에서 불교로의 전환과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이 큰 전환이었고, 이 시기에 저항과 적응의 기제가 적절히 작용하여 무교와 유·불·선이 융화된 종교적 상황을 길렀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러한 종교들의 회통적 관용 정신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면 유교적 제사의식을 신봉하는 선비집안이라도 부녀자의 불교 신앙을 금한 것은 아이였으며, 불교 사찰에도 삼성각(三聖閣)을 두어 전통 무교를 아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온 기독교와 유·불교와의 갈등 및 충돌은 초기의 금압 정책이 사라진 오늘날에 와서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한 예로 성묘와 제사의 문제는 아직도 가족 또는 집안의 구성원 간에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표면적 현상이 아니더라도 종교 다양화 시대에 한국인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여러 형태로 깊게 드리워져 있다고 보여진다.

산업 발전에 의한 사회의 도시화와 물질적 풍요, 국제 교류의 증대와 세계화의 대세 속에 와해된 전통적 한국인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 복합되어 동시에 겹쳐진 다양한 종교체제들이 제시하는 상호 갈등과 대립의 교리체계는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큰 과제를 더욱 어려운 난제로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톨릭에 국한하여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적 갈등의 경험과 회통 노력(토착화) 및 현 시점에서의 과제 등을 논하고자 하며,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가톨릭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 교육을 논함에 있어 가톨릭의 전래 과정에서 일어난 유교적 조상 숭배 및 제사 등과 관련된 갈등의 경험, 20세기 후반부에 일어난 신앙 및 교리체계와 토착화의 과제, 그리고 21세기 초반인 현 시점에서 물질적 풍요속의 정신적 빈곤과 종교 다원화가 가져온 한국인의 정체성 재정립 요청과 가톨릭 종교교육의 방향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Ⅲ. 가톨릭의 수용과정과 정체성 문제

1. 가톨릭의 수용과정⁴⁾

1) 가톨릭의 접촉기

한국의 그리스도교와의 접촉은 임진왜란(1592-1598)때에 일본군 군종 신부로 온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소속 선교사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 땅에서 한국인들

4) 이 절에서는 역사적 개괄을 함으로 ‘가톨릭’과 ‘천주교’를 상황에 따라 혼용 하기로 한다.

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로 연관되는 어떤 신앙 활동이 지속적으로 한국 땅에 이어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에 이것을 한국 가톨릭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는다.⁵⁾ 한국의 그리스도와의 접촉은 중국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 해마다 중국에 동지사(冬至使)라는 이름으로 사신이 왕래하는 기회에 중국에 전해진 서양 문물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접촉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 명나라에는 1483년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이 많이 입국하여 포교를 하고 있었다. 이들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천주교 관련 서적뿐 아니라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과 더불어 많은 서적들을 한문으로 번역하거나 저술하였다. 이러한 서적들이 1603년 경부터 사신들에 의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책들로 인해 조선에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實學)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서학 관련 서적들 중에는 천주교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북경에 부경사행원으로 사행한바 있는 이광정이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지도와 천주실의, 교우론을 홍문관에 전하면서 그후 매년 많은 수의 한역 서학서와 과학기기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유학자들은 이러한 책들을 한 편으로는 호기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거나 소개하고 연구하였다.

2) 서학 탐구기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한역 서학서의 탐독과 북경에 있는 예수회 신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역 서학서를 섭렵하고 학문적 탐구로 발전시킨 시기이다. 이익과 그 뒤를 이은 성호학파의 학인들과, 홍대용과 그 뒤를 이은 북학파의 학인들에 의해 조선에서의 서학의 학문성이 제고되었다.

조선에서 한역서를 통해 서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여 새로운 학풍을 형성하고 사상적 차원에서 정착시킨 이들은 대체로 실학파에 속한다. 초기 한역서학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실학파의 선구자 지봉 이수광이 '지봉유설', '천주실의', '교우론'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들 서책은 조선에 있어서 서학연구의 기본문헌으로서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천주실의'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혔다.⁶⁾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를 저술할 때 불교는 배척하는 한편 유교는 기독교로 넘어가는 교량이나 교육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천주교와 유교의 유

5) 이원순,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용과정 -교회창설과 선교개시>, 《한국교회사의 산책》,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8, 24-36쪽.

6)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 서울 : 일지사, 1988, 99-107쪽.

사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데우스(Deus)의 음역인 天主'는 불교적 개념으로서 이를 유교적 개념으로 환원시키고자 상서(尙書), 시(詩), 예기(禮記)등의 선진고경에 나오는 인격성을 따는 天의 개념인 上帝'를 찾아내 천주교와 유교의 유사성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였다.⁷⁾

천주실의'등의 서양 종교와 윤리에 대한 서책을 두루 독파했던 성호 이익은 서양의 천문, 역법, 지리에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익의 서학에 대한 관심은 신후담, 안정복, 권철신 등의 제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성호학과 외에 영정조 당시의 실학의 일파로 북학파의 활동이 서구 문물을 수입하는데에 기여했다. 이들은 청나라의 문물제도와 과학기술을 조선에 소개했으며, 공단을 배척하고 실학존중의 학풍을 진작시키려 노력했다. 이들 북학파의 대표적 저서로는 박제가의 '북학의' 홍대용의 '담헌집' 박지원의 '열하일기' 유득공의 '냉재집', 이덕무의 '청장관저서'등이 유명하다. 이들 북학파의 저술은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변혁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당시 지식인 층에 큰 충격을 가했으며, 유교적(성리학적)세계관에 큰 도전을 가했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가톨릭적 교리체계와 직접 관련이 되진 않았으나 서학이 가톨릭과 서구 문물의 복합 상태로 들어와서 상호밀접하게 한국인의 전근대적 정체성 붕괴에 기여했다.

3) 서학 실천기

정조대에 이르러서 일부 재야 남인소장학자들이 학문적 관심에서 연구해오던 천주신앙과 윤리를 실생활에 실천하고자 했으며, 1784년 이승훈이 영세받고 귀국함을 계기로 이벽 권일신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신앙집회를 가지게 되어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을사 추조적발사건, 반회(泮會)사건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교세를 확장하고 주문모 신부를 중국으로부터 영입하였다.

성호학과인 안정복 신후담을 필두로 이벽 권철신 정약용등은 지속적인 서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서양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감 속에서 학문으로서의 수용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수용까지 실시하여 성리학적 사회구조를 개혁하려고 노력한다.⁸⁾

4) 서학 탄압기

당시 전통적 성리학의 가치의식을 신봉하는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신앙으로

7) 차석기, <천주교와 한국근대교육의 연구>, 고려대학교 《사대논집》 15집, 1990, 6쪽.

8) 위의 책, 5-7쪽.

전환되어가는 젊은 학자들의 행위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복세력으로까지 비추어지면서 봉쇄와 금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교적 집권 세력의 대 서학 봉쇄는 신앙집회에 대한 금압으로 작동하게 되며 이어서 을사 추조직(1785)사건과 정미 반회사건(1787)으로 확대되어갔으며 조상제사의 전례문제로 일어난 신해 진산사건(1791)을 계기로 전국적인 대탄압이 일어나고 말았다.

정부의 금압 정책을 마침내 천주교 신앙 운동만이 아니라 서학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연구까지 금하게 되며, 신해 진산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외규장각과 홍문관에 소장하였던 한역서학서들을 모조리 소각하였으며, 그리고 더불어 북경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서적은 물론 패관잡기류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취하여 서학자료의 원천적 봉쇄를 단행하였다.⁹⁾

신유박해(1801)는 천주교의 문화적 충격에 대응하는 유교적 봉건 집권세력의 격렬한 저항이었으며 성리학적 가치세계 옹위를 위한 유교적 사회의 반동작용이었다. 이때부터의 천주교 박해는 천주교 신앙과 윤리→서학의 理 측면→西學'으로 박해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마침내 서학의 전면봉쇄를 결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규경, 최황기등에 의해 서학과 개방의 맥이 흐르고 있었다.

2. 정체성의 갈등 : 한국인의 유교적 정체성과 가톨릭의 교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제도, 전통, 문화, 신화, 종교등 다양한 요소 중 조선시대에 한국의 지배적 신념체계를 제공했던 유교주의와 가톨릭의 교리교육이 극명한 대립을 보였었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두 종교간의 대립된 점 중에서 1) 신관, 2) 윤리관: 조상숭배와 효, 3) 사회적 인간관계: 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신관

가톨릭의 종교교육의 핵심은 하느님은 초월적인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인격신으로서 인간의 고뇌와 죄악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구원자임을 기본교리로 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근간이 되는 창조주와 인격신 개념이 유교의 세계관과 신관에 위배된다고 유학자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9) 한국사목 연구소, 《국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61-62쪽.

먼저 창조주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겠다.

정자(程子)는 주재(主宰)하는 것은 제(帝)한다.'고 말했으니, 저들이 천주가 천지를 주재한다고 말한 것은 좋다. 주자(朱子)도 만물은 제(帝)를 따라서 드나든다.'고 말하였으니 저들이 천주가 만물을 편히 기른다고 말한 것도 그 뜻은 비슷하나, 그러나 천지의 이루어짐이 천주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이치로 보아도 조심이 없고 경전에도 근거가 없으니, 바로 망령된 설에서 나온 것이다. 저들은 비록 목수가 집을 만드는 일을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천지의 개벽이 사람이 집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제가 목수에 비교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생명을 타고난 후에 바로 마음이 사람의 몸을 주재하나 사람의 몸을 만들수 없는것과 같다.그런즉 상제가 비록 천지를 주재는 하되 어찌 천지를 만들어냈다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이 저들의 설과 잘못이다.

천주가 만물의 주재임을 긍정하였으나 창조자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¹⁰⁾ 이러한 비판은 창조'를 '제조' 또는 '만들'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가톨릭 교인들은 이 오해를 풀어주지 못했다. 예로 정하상이 하느님이 창조주임을 증명하여 천주교 박해를 중지해 달라고 재상에게 올린 글에도 제작자로서의 의미만이 담겨있을 뿐이고 시-공간과 현상을 초월한 창조주의 의미가 들어나 있지 않다

세상사람들이 한 편의 걸작이나 한 폭의 명화를 보면 흠모하고 찬탄하며 반드시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된 것인가를 물어보며, 결코 범상하고 소홀하게 보아 넘기지 아니합니다. 우주의 만물이 가지각색으로 한없이 많은 것도 역시 일종의 걸작이요 명화인데 예로부터 이제까지 쓸쓸하게도, 이에 대해서만은 지은 자를 묻지 아니함은 무슨 탓인지 모르겠습니다...¹¹⁾

다음으로 '인격신'에 대한 비판은 하느님은 감각적 존재가 아니며 대상화 될수 없는 존재라는 유교적 관점에 바탕한 것이다. 즉 하느님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과 분노, 창조와 계시, 성육신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이다. 여기서 유학자들과 당시 가톨릭 교인들이 '인격신'을 '공간에 대상화된 존재'로 오해하고 있음을 본다.

天의 인격화를 天의 대상화로 이해한 것은 신후담과 홍정하의 비판을 보면 더

10) 김시준 역, 《한국천주교 박해사》, 이만채편, 《벽위편》, 명문당, 1987, 72-73쪽.

11) 위의 책, 345-348쪽.

욱 분명해진다. 여기에 대해 금장태 교수에 의하면 “신후담은 직방외기(職方外記)’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적이 논리적 모순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천주가 성인 모세에게 십계(十戒)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모세가 성인이 아니라면 천주는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모세에게만 주었겠는가 하는 반문을 하였다. 곧 천주가 절대자라면 보편성을 벗어난 개인적 홍의(弘意)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예수의 강생에 대하여 천주가 강생할 수 있을지라도 천하 만국에 윤회강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태에서만 강생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 공변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수의 부모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모가 있다면 상제의 존엄으로 한 부부의 배태(胚胎)에 의탁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박한다. 여기서 신후담을 통해 볼수 있는 유교적 입장에서 상제는 육신의 형태로 인간화할 수 없다는 상제의 초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나타난다”.¹²⁾

2) 윤리관: 조상숭배와 효

유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부모에게서 전수되는 것으로 이해 해왔고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로서 효가 강조 되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즉 부자관계는 모든 윤리규범의 기본 토대로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떠한 사회관계를 막론하고 전통적 유교주의의 기본틀 속에 있어서 부자관계보다도 선행되어지는 윤리규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유교주의에서 중요시되어지는 군신간의 규범인 충의 개념도 실제에 있어서는 부자간의 윤리규범의 효보다는 선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기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삼강(三綱), 즉 부자, 군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선행인 것은 부자관계의 규범인 효였으며, 군신관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자관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었다. 가톨릭의 교리교육의 영향은 이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가톨릭 사상은 부모나 군주를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는 유교사상과는 달리, 부모나 군주에 우선하는 천주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주는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이며 지배자로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천주보다 높은 권위와 존경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주교의 교리는 한국의 유교적 정체성의 핵심규범이었던 효와 충을 상대화 시키는 충격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정체성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낳았다.¹³⁾

12) 금장태, 《동서 교섭과 근대한국사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4. 126-127쪽.

효에 대한 가톨릭과 유교간의 차이는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살음으로써 대박해를 유발시킨 윤지충의 진산사건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사건은 두 종교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가톨릭에서의 효에 대한 관념과 실천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부모의) 영혼이 술과 다른 양식으로 결코 양육되지 않았던 만큼, 더구나 죽은 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분들이 죽음이라는 긴 잠에 드셨을 때, 그 분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고 거짓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아무런 참다운 향기도 없는 음식을 쓰는 것을 그만두고, 온 힘을 기울여 덕행을 닦는 데 전심하여 그 결과를 그 분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동시에 우리 영혼도 기르는 것이 참된 길이고 바른 도리입니다.¹⁴⁾

윤지충의 진술내용을 보면, 우선 효에 대한 개념이 유교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즉 효도란 온 힘을 기울여 덕행을 닦는데 전념하여 그 결과를 부모에게 미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교에서와는 달리 효의 출발점을 부모보다는 자신에게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이 건전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것이다. 효 개념의 수정을 주장하는 이러한 그의 태도는 효의 실천 방법으로 존중되던 조상제사와 신주의 소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¹⁵⁾

윤지충의 사건으로 표면화된 조상제사와 숭배의 거부는 유교적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될 수 밖에 없었고 유교적 봉건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는 대박해를 받게 되었으나, 기존 유교적 사회질서의 붕괴를 촉진 시키고,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인간관계: 차별과 평등

유교적 인간관계는 군신, 양반, 중인, 상인의 신분제도, 장유유서, 부부유별등 차별성에 바탕하고 있으며, 오늘날 까지도 한국 사회의 각종 조직에서 상하 수직 관계로 작용하고 있다. 가톨릭의 교리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 평등하다는 인간

13) 노길명, 앞의 글, 506-507쪽.

14) Charles Dallet, *Histoire l'Eglise de Coree*, Paris Libraire Victor. 안응렬, 최석우 공역
《한국천주교회사》상권, 왜관 : 분도출판사, 1979, 348쪽.

15) 노길명, 앞의 글, 506-508쪽.

관계를 제시하였고, 이에 평민, 천인, 부녀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

어느 사회이고 남녀의 사회적 지위는 동등하지가 않다. 대체로 보아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의 그것보다도 낮고 또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교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예측적 성격을 나타냄으로서 타 전통사회에서 보다도 그 정도가 대단히 심했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여성관은 기존 유교주의에서의 여성관과는 크게 상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이러한 여성관에 토대한 가톨릭에서의 동정과 불혼(不婚)에 대한 미덕화, 일부일처주의, 자유결혼, 개가(改嫁)의 허용, 남녀동석의 필요성 인정 등은 기존의 유교주의적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도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초기부터 여회장제도를 두었으며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¹⁶⁾ 따라서 가톨릭의 여성관은 한국가톨릭교회의 창립이전인 서학서의 전래 초기부터 유학자들에게서 심한 반발을 받게 되었으며, 박해시대에는 조상제사의 문제와 함께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증거로 제시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가톨릭에서 남녀차별의 타과 사상은 그들의 종교활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사를 비롯한 가톨릭의 전례와 비밀신앙집회에서의 남녀동석은 남녀7세부동석'의 엄격한 유교주의적 규범에 상치되는 행위였으며, 더구나 국가에서 금지하는 가톨릭의 교리를 이성에까지 전파하는 전교활동은 남녀유별의 봉건적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엄금하는 종교를 신봉하기 위해 남녀가 비밀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가족이 아닌 이성간에 가톨릭교리를 논한다는 것은 가톨릭의 윤리가 파렴치한 것이고 그 종교양식은 외설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가톨릭은 양반계급의 남자들에 의해 수용 연구되었고 또 그것이 교회창립으로 연결되었지만, 이들의 신앙이 가족들에게 전파되고난 이후부터는 교회업무나 전교활동에 있어서 남녀간에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가톨릭활동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크게 증대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당시의 여성들은 봉건적인 가족제도하에서 사회활동의 기회를 차단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인정하는 가톨릭에서는 초기부터 여성신도의 활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¹⁷⁾

16) 김옥희, 《한국천주교 여성사 (I)》,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3, 44-52쪽.

17) 노길명, 앞의글, 513-518쪽.

이와 같은 당시 가톨릭 여성신자들의 활동은 봉건적인 신분제도나 가족제도에서 볼 때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폭 넓은 활동은 유교주의적인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 차별의 의식을 타파하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여성활동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봉건적인 유교주의적 가족제도의 청산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한국 여성들의 정체성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평가된다

3. 정체성의 진화 : 토착화

가톨릭의 전래과정의 초기에는 보유론적 선교정책으로 당시 조정과 사대부 계층의 호감을 사는데 주요했다. 그러나 교황청의 정복주의 선교 정책으로의 선회와 전통 제례의 금지는 가톨릭 신앙의 금압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서구 열강의 팽창에 편승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고 선교에 활력을 얻었으나, 서구 중심주의적 우월감과 동양문화를 경시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 때문에 동양적 전통과 가치의 파괴자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세기에 들어 서구 열강의 일방적 식민지 지배시대가 가고 세속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등 반 종교적 사상의 확산으로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변화속에 유럽교회와 교황청은 복음과 유럽문화, 보편적 그리스도와 유럽화된 그리스도교를 구분하였고, 선교지의 문화와 사상에 대해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톨릭의 정체성이 보유론에서 상보적 적응을, 다음의 정복주의 금압시기와 우월주의와 저항의 시기에는 상호갈등으로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상호 이해의 노력 및 토착화로 변증법적 진화의 역사를 밟아 왔음을 본다.

토착화 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3)의 정신인 쇄신과 적응'(renovatio et adaptio)을 통한 교회의 현재화(Aggiornamento)개념의 영향으로 나온 것으로서, 오늘날 전세계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 생활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토착화는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지방 문화의 만남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는 용어로서 그리스도교가 각 지방 고유의 전통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피고 열매맺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교가 각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고 복음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할 때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도 또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가치를 만나 쇄신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는 그러므로 복음이 각 지역의 지방 문화를 만나 그것을 쇄신하고 완성할 뿐 아니라 복음도 그 지역 문화의 고유 가치를 통해 풍요롭게 되므로 상호 쇄신과

상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상호 쇄신과 상호발전이란 점이다. 이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변화가 따르고, 동시에 가톨릭 교리의 해석체계에 도(즉 가톨릭 정체성)변화가 따름을 의미 한다. 궁극적으로는 상호 모순이 사라지고 상호 조화되는 정체성의 융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토착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이분법적으로 양자 택일을 하는 단순한 사고의 예를 들어보고 다음에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연한 사고의 예를 들어보자.

정체성 갈등에서 이분법적 반응의 예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의 가장 첨예한 표출은 이미 앞절에서 예시한 바 있는 한국인의 조상숭배의 의식인 제사와 가톨릭의 미신배격 정신의 충돌이었다 : 교황 클레멘스 II세는 1715년 3월 19일 칙서 *Ex illa die* 에서 쫓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과 제사등은 집에서 거행하든지, 무덤앞에서 거행하든지간에 모두 미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한다 “고 했다.¹⁸⁾

윤치중, 윤지헌, 유항검 황사영 등은 교회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폐 했는데 이유는 단순히 천주교에서 금하기 때문’이었다 . 천주의 명령이므로 부모나 임금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교의 가르침은 결코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 홍락민, 이가환 등은 제사금령에 대해 계속 거부하였으며, 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신해년 이전에 서학을 연구하다가 입교한 관료 지식인이나 학자들로서, 지성적 주체 의식과 현실 개혁 의지를 갖고서 신앙 생활을 하였으며, 전통 사상인 유교와 조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혁신하고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그들에게 유교의 핵심이요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의 추효보본(追孝報本)인 조상 제사에 대한 금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부(無父)의 멸륜폐상(滅倫廢常)으로 인식 되었던 것이다. ¹⁹⁾

토착화적 해법의 예들

조상숭배를 부모를 모시는 효도의 연장선 상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 십계명의 제4계문(부모에게 효도하라)의 확장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가톨릭 교리의 실천을 전통적 문화의 토양속에 다양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사의 의식을 가톨릭 의식의 일부와 융화시키는 것도 상호발전의 방향이

18) 최기복, 〈한국 전통 문화와 천주교회의 충돌 : 조상제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목연구 소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63-65쪽.

19) 위의 글, 71쪽.

될 수 있다. 최기복 신부의 다음 제안은 좋은 예이다.²⁰⁾

첫째, 가톨릭의 미사 성제 안에서 조상 제사를 온전히 흡수하기보다는 평신도 사제직의 장려 차원에서 가문 단위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톨릭 조상 제사의 형식은 옛날 천자가 드리는 형식과 같이 선조를 배천(拜天)하고, 아울러 선조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께도 보본(報本) - 보은(報恩)토록 한다.

셋째, 가톨릭 조상 제사는 두 부분으로 하되, 전반부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조를 위해 기도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선조께 직접 감사를 드리며 통교하고 전구를 간구한다. 아울러 성실한 삶을 통해 하느님과 선조를 섬기기로 결심하며, 제물을 나눔으로써 친교의 잔치를 한다.

넷째, 효성의 상징적 표현인 제물은 가문과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하고, 신주(神主)는 신령의 표상이므로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전통을 고집하는 가문에서는 허용해도 좋다. 축(祝)은 선조에게 드리는 애절한 마음의 표현으로서 장려하고, 묵념을 통해 선조와 통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금장태 교수도 유교의 조상 제사는 천주교 안에서 조화롭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²¹⁾ 한국 사람에게 조상 제사는 관습적으로 소중하게 실천되는 생활 양식이다. 조상 제사는 혈연의 연속적 유대를 강화해 주는 방법이며 인간이 죽은 후에도 후손의 마음속에 추억과 애정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방식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우리 민족의 얼 속에 남아 있는 이러한 가족적 인간 관계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수용하여 그 얼을 토착화한다면 한국적 그리스도교의 모습이 더욱 드러날 것이다.

가톨릭 금압기에는 유교적 정체성과 가톨릭 정체성이 '제사'라는 형식적 의식에서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로 나뉘어져 상호 융합과 회통의 진화를 이룰수 없었다. 토착화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다양한 가치와 양식을 인정하는 사고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이제 유교와 가톨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만나는 시대에는 토착화보다도 한발 더 나아가 여럿의 다양한 신념체계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토착화는 이러한 지대적 요청의 한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 최기복, 〈조상 제사 문제와 한국 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2000, 76-83쪽.

21) 금장태, 〈유교사상과 천주교 - 조상제사 문제를 중심으로〉, 356-363쪽.

IV. 가톨릭 종교교육의 과제

한국인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며 모든 한국인이 다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동일한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다. 현대의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러한 점을 극히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물질적 가난에서 급속하게 풍요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 나타나는 정신적 타락과 빈곤, 다양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각종 종교와 종파의 분립으로 야기된 한국인의 정체성의 혼란은 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 물질풍요 시대의 종교교육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 시대와 미래는 물질적 풍요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물질적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나 이제는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풍요에서 오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맞게 되었다. 물질 빈곤시대에 가졌던 인간 중심의 한국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등 물질 과학은 나날이 세계를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상업주의에 바탕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생명경시 풍조와 인간 소외 등 정신적 빈곤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시대의 문제에 대처해야 할 학교교육은 오히려 입시위주 지식위주와 경쟁위주 등 공교육 붕괴의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물질풍요 시대의 교육이 요구하는 바는 도덕교육, 전인교육이며 이는 바로 종교교육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의 교리교육은 하느님의 신앙에 바탕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인간관, 사회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풍요를 지향하도록 해야한다. 인간성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학생과 학생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한 가톨릭 종교교육의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인간은 종교적 갈망을 통해서 도덕률에 대한 순응력과 이기주의의 억제 및 자기 행동의 자제력을 기를 수 있고 도덕률과 사회규범과 개인의 본능적 충동을 조화있게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복음 정신에 입각한 가톨릭적 학교의 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랑과 정의, 책임감과 협동심, 자제력, 순명등을 배우게 하여 참다운 인간화와 형제애를 도모하는 인격을 형성시킨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윤리교육을 포함함 모든 인간성 교육은 종교교육의 도움을 받을 때 그 교육적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²²⁾

2. 종교 다원화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학자들은 한국을 세계 종교의 전시장, 세계 종교의 백화점, 종교박람회장이 라고 표현한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등 세계적 고등종교에서부터 몰몬교, 바하이교, 여호와의 증인 등 그로부터 파생된 종교들, 그리고 대종교, 증산교, 천도교, 원불교등 민족종교들 이밖에도 선린회, 세계구세교, 인관도, 일련정종, 천리교 등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전래된 지역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활약 중인 종교단체의 수는 약220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다원화된 종교 환경은 가톨릭 교리교육의 토착화 방식의 새로운 전개가 요청된다. 토착화는 오랜 전통의 문화와 가치관 또는 생활규범과 가톨릭 교리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스도적 신앙이 전통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선교의 적극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원화 종교 환경에서는 각 종교와 종파간의 배타적인 교리교육이나 경쟁적이고 성장위주의 선교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은 곧 종교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어 종교의 역기능만 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신관이나 가치관으로 단순화된 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종교교육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다른 신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은 비유하면 하나의 단순한 색깔로 표현될 수 없으며 여러 색깔들의 복잡미묘한 조화로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다종교 상황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항상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대화를 강조해 왔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중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2항은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교회는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더불어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생활을 증거하는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내지 윤리적 선과 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고 지키며 발전시키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권하는 바이다."²³⁾ 이러한 방

22) 윤주병, 《종교교육과 청소년지도》, 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103-104쪽.

향에서 우리나라 가톨릭계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입장에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 및 그들과의 대화를 강조해 오고 있다. 모든 종교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있는 지식을 습득케 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갖게 하는데 있다.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종교 일반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과 미신을 구분하고, 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종교들의 경전과 교리,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키워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종교와 종파들의 신관이나 가치관을 회통시키는 메타(meta)적 신관의 제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름이나 형태나 경배의식이 달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교의 신관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공통분모로서 내재해 있음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모이는 장소(교회, 절, 사당 등)나 기도의 형태가 다르고 또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 실제 행해지는 기도나 그 기도가 바쳐지는 분은 같은 신임을 볼 수 있다. 각기 부르는 이름이 자신들이 모인 장소 또는 단체의 특색에 따라 다른 개념(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등)으로 불린다고 하나 한국인들에게 그 신은 종파(종교)를 초월하여 초월적인 힘을 지닌 분이며 한이 맺혔을 때 빌면 그 한을 풀어주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재앙을 피하게 하며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온갖 질병을 낫게 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며, 그러다가 내가 어찌다 나쁜 일을 하면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분, 어쨌든 그들이 믿는 신은 최고의 신, 하늘님이다.²⁴⁾

V. 결 론

한 사회가 자체의 통합성을 지속시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체계가 상부구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사회 성원의 정체성은 이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립되며 그 개인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 해준다. 그런데 그 사회의 가치와 신념체계의 궁극적인 준거요 강력한 원천은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종교의 교

23) 〈비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608-609쪽.

24) 이제민, 〈한국 천주교의 수용 과정에 나타난 한국 천주교인의 신관과 오늘날의 과제〉, 한국사목연구소편, 《신관의 토착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5, 172쪽.

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교리교육 즉 종교교육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특히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거나 전통 종교에 외방 종교가 들어올 때에 사회 구성원은 심각한 신념체계의 혼란을 겪게 되며 따라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친다. 조선후기 가톨릭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전통과의 충돌은 근대 한국사회에서 정체성 갈등의 격한 요동을 불러 왔었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유교주의적 세계관과 가톨릭적 세계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분법적 단순 논리의 고통을 체험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정체성 만남의 열린 방식이 가능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통문화와 가톨릭이 만날 때 전통성이 쇄신되고 완성됨이 가능하며, 또한 가톨릭의 교리 해석도 풍요롭게 되는 상호발전의 길이 시도되고 꽃피기 시작한 것이다.

가톨릭 토착화의 정신은 21세기 종교다원화 상황에서 더 한층 고양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여러 문화, 관습, 종교가 혼용될 때 어떻게 상호 평화공존과 대화가 가능하며, 각 신념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현양시키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토착화의 경험은 두 문화의 충돌에 적용된 개념이지만, 이를 확대 발전시켜 다문화 다종교간의 대화와 상호 쇄신에 기여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 종교교육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과제라 생각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한 없는 물질적 풍요를 주었으나 동시에 정신적 빈곤을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복잡 다양 하며,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엔 어느 특정 종교 하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정체성이 만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처방이 요청되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다원화가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점에서 한국은 가장 앞선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종교 다원화 사회에서 대화와 평화의 공존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맡게되었으며, 이 임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한국 종교교육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김시준, 《한국 천주교 박해사》, 이만재편, 벽위편, 명문당 1987.
 김정수, 〈어제의 한국 교회 교리 교육의 실상〉, 사목연구소 편찬, 《교리교육 복음선교의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김옥희, 《한국천주교 여성사 (I)》,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3.
- 금장태, 《동서 교섭과 근대 한국사상》,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4.
- 노길명, 〈조선후기 가톨릭의 수용과 가족관계의 변화〉, 《아세아연구》 7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84.
- 문용린,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과 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목》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23('97.8), 1997.
- 이상택, 〈가톨릭 사회 교리의 정체성(정체성)탐구: 철학에서 신학으로의 이행〉, 《사목》 269(20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이상훈, 〈오늘의 한국 교회 교리 교육의 실상〉, 사목연구소 편찬, 《교리교육 복음선교 위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이제민, 〈한국 천주교의 수용 과정에 나타난 한국 천주교인의 신관과 오늘날의 과제〉, 한국사목연구소 편찬, 《신관의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 이원순, 〈천주교와 개신교위 수용과정-교회창설과 선교개시〉, 《한국교회사의 산책》,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8, 24-36쪽.
-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8, 99-107쪽.
- 유재국, 《교리교육사》, 기쁜소식, 1990, 167-170쪽.
- 윤주병, 《종교교육과 청소년지도》, 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 정진홍, 〈우리 종교 문화와 종교교육〉, 《철학과 현실》 35('97.12), 철학문화연구소 1997.
- 조현범, 〈일제 강점기 조선 천주교회의 정체성〉,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87호 (200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최기복, 〈한국 전통 문화와 천주교회의 충돌〉, 한국사목연구소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최기복, 〈조상제사문제와 한국 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2000.
- 차석기, 〈천주교(서학)와 한국근대교육의 연구〉, 《사대론집》 15 집, 고려대학교, 1990.
-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서울: 도서출판한울, 1996. 14쪽.
- 최상룡, 〈천주교 교육사상과 한국근대교육; 구한말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1('92.2), 한국교육사상연구회, 1992.
- 하성래,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천주교인으로서 정체성》, 《사목》 통권 제272호 (2001.9), 한국천주교회중앙협의회, 2001.
- 한국사목연구소편, 《국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한정수, 조선의 서학수용과정을 통해 본 조선천주교회의 고유성에 대한 연구, 인천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홍은화,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Charles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Paris Libraire Vitor. 안용렬, 최석우공역, 《한국천주교회사》 상권, 왜관:분도출판사, 1979.

Digiacomo, James, 〈우리의 10대, 종교 교육은 어떻게?〉, 《사목》 254(20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Erikson Erik. H., *Identity and Crisis*. W.W.Norton & Company Inc. 1968.

교회문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제삼천년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목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그리스도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비그리스도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원고접수: 5월 1일 1차심사: 5월 7일 게재승인일: 5월 30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분석심리학

③ 주요논저: 〈대승기신론의 아라야식과 융의 무의식 비교고찰〉, 〈유식불교의 중자설과 융의 원형론의 비교고찰〉, 〈불교의 무아설과 융의 자기실현 비교고찰〉

④ E-mail: hschung@suwon.ac.kr

The Role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s Identity Reformation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Abstract》

Relig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identity of a society as the ultimate value and belief system. The identity of Korean had been formed by the religions such as Shamanism, Tao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We investigated interaction between the Catholic doctrines and the Confucianistic tradition which caused extreme conflict in the late Chosun dynasty when the Catholic and Western culture were first introduced.

The historical introductory process of the Catholic is briefly reviewed, and the identity conflicts were considered in theology, ethics, human relations in society. In the conflict-period dichotomic thoughts prevailed to choose only one of two conflicting belief-systems. However, in the late 20th century more mutually admittive mind has arisen,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benefit betwee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Catholic teachings has been slowly appreciated to develop matured religious education and inculturation of Catholicism.

Now in the 21st century Koreans have experienced identity crisis which is caused by the fast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ne hand, and the whirlwind of various cultures and religions on the other hand. Based upon the long experience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one should contribute with renewed identity formation and maturation for Korean society.

Key Words : identity, inculturation, religious pluralism, religious doctrines, Western Teaching, religious education.